



제5차 전국 장내기생충 감염을 실태조사 개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제5차 전국 장내 기생충 감염을 실태 조사가 올해 실시된다.

'71년부터 전국인구중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매5년마다 실시되어온 본 실태 조사는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의 기생충 감염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국가 기생충 관리사업의 방향 설정에 기여하는 한편 국민건강증진에도 이바지해 왔다.

지난 4월 17일, 기생충학 분야의 학자·전문가들로 구성된 제5차 전국장내 기생충감염을 실태조사 자문위원회가 개최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한 제5차 실태조사는 전국 194개 조사지역의 4만 3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검사결과 통계 처리까지 완료되는 최종 시기는 '93년9월30일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건강관리협회가 검사를 비롯한 제반 행정사항을 전담하고, 보건사회부, 내무부, 공보처, 통계청의 협조로 실시하게 되는 본 실태조사의 검사결과, 총란양성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투약, 치료해 줄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제5차 실태조사는 그동안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우리나라 기생충 관리에 있어, 아직까지 문제가 되고 있거나 새롭게 문제가 되고 있는 특수기생충에 대한 관리방향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관계자들은 그런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를 당부하고.

금연홍보 가두캠페인 가져

세계금연의 날 맞아 다채로운 행사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제5회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맞아, 지난 6월 1일, 기념식과 세미나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낮 12시부터 서울역에서 금연 홍보를 위한 가두캠페인도 벌여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생굴 먹어도 기생충 감염

이순형교수, 짐노팔로이데스흡충 발견

생굴에서 나온 "짐노팔로이데스 흡충"이 간이나 폐, 장 등으로 침입, 디스토마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

서울의대 이순형교수는 '89년 한 급성 췌장염 환자의 대변검사서 흡충을 발견한 후 전남 신안군 입해면 지역주민 9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9%가 본 충에 감염되었음을 확인했다